

<要約>

I. 輸出 主力 産業의 輸出 現況

- (經常 收支 赤字 深化) 96년 237.2억 달러에 달하는 經常 收支 赤字는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수출 부진과 무역외 수지 적자 확대가 주요인
- (5大 産業의 輸出 比重 縮小)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輸出 比重이 점차 縮小되고 있음
- (輸出 競爭力 低下) 5대 주력 산업에 있어서 總交易 規模 對比 輸出 比重이 줄어들고 있어서 수출 경쟁력도 점차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II. 産業別 競爭力 現況과 輸出 展望

1. 石油化學

- (現況) 96년도는 物量面에서 수출 규모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製品 價格이 급속히 하락하여 금액 기준 輸出 規模는 1995년보다 소폭 감소하였음
- (競爭力 評價) 가격 경쟁력은 미국, 유럽 국가들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며, 汎用 製品 이외의 생산 기술은 先進國의 40~60% 水準에 그침
- (輸出 展望) 97년 수출은 25% 정도 증가할 전망인데, 이는 국내외 주요 석유 화학 업체의 설비 개·보수로 인한 공급 축소에 따라 가격 回復이 기대되기 때문임
- (課題) 범용 제품 중심의 단순한 생산 기술에 의존하는 전략에서 탈피, 高度 技術 開發에 의한 高附加價値 제품 개발이 시급함

2. 鐵鋼

- (現況) 철강 산업의 수출은 물량 면에서는 작년에 5.5%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수출 단가 하락으로 금액 기준으로는 16.4% 감소
- (競爭力 評價) 보통강 판재류는 가격 경쟁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공급 능력 정체로 수출이 부진하고, 고부가가치鋼은 기술 개발 미비로 열세를 나타냄
- (輸出 展望) 내수 위축에 따른 수출 여력의 증가와 세계 철강 경기 회복에 힘입어 철강 수출량이 지난해보다 9.8% 정도 늘어날 전망임
- (課題) 판재류 부족에 대응한 고로 증설이 시급함

3. 半導體

- (現況)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國內 半導體 3社의 수출 대폭 감소
- (競爭力 評價) 메모리 반도체는 생산 규모 및 단가 측면에서 경쟁력이 강한 편이나, 수익성이 높은 非메모리 분야는 기반 기술과 설계 인력 부족으로 인해 競爭力이 취약한 상황임
- (輸出 展望) 한국 반도체 3社의 減産 政策과 일본 업체의 減産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수출 회복 기미가 보임
- (課題) 반도체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材料와 裝備 産業에 대한 투자 확대, 非메모리 반도체 비중의 확대를 통한 수익성 및 안정성 확보, 그리고 業界의 共同 研究 體制 構築을 통한 투자 효율성 증대가 필요함

4. 自動車

- (現況) 95년 32.7%의 증가율을 나타냈던 자동차 수출이 96년에는 23.6%를 나타내 증가 추세가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음
- (競爭力 評價) 가격, 품질, 안전도, 연비, 성능 등 주요 경쟁력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차는 외국차에 비해 소형, 중소형 부문에서 10% 우위 내지 동등한 수준이나 중형차급에서는 10% 정도 열세임. 산업 전체 생산성도 평균적으로 일본의 절반 수준임
- (輸出 展望) 96년말 발생한 노사 분규, 엔저 현상 지속 등으로 인해 97년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8.3% 증가에 그친 131만 여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課題) 우선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을 전사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나아가 품질 개선, 제품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주력해야 함

5. 造船

- (現況) 수주는 지난 연말 탱커 대량 수주에도 불구하고 연초 예상치에 약간 못 미치는 695만 GT, 수출은 최근 3년간 확보된 수주 물량과 생산 설비 능력 증대로 30% 정도 증가한 66억 달러였음
- (競爭力 評價) 현재 최대 경쟁국인 일본과 비교해 볼 때 가격 경쟁력은 9%, 비가격 경쟁력은 5% 劣位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 종합 경쟁력은 14%까지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됨
- (輸出 展望) 97년 新造船 受注는 일본의 선별 수주와 우리 업체들의 확장된 생산 능력의 적정 稼動率 확보를 위한 공격적인 수주에 따라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며, 수출은 생산 停滯로 96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임
- (課題) 생산성 향상, 선박의 건조 원가 절감, 기술 개발 투자 등 각 부문에서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Ⅲ. 競爭力 提高 方案

○ (既存 成長 戰略 限界)

- 성장기에 가려져 있던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경쟁력 강화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 素材 産業의 경우에는 低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는 수출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음
- 자동차, 조선 등 組立 産業의 경우에는 국내 생산만으로는 가격 경쟁력 유지가 곤란

○ (輸出 修正 展望 綜合)

- 소재 산업인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산업의 97년 수출은 국내외 주요 반도체의 감소, 해외 수요 호전 등으로 前年에 비해서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조립 산업인 자동차, 조선 산업의 경우에는 엔저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 노사 분규로 인한 부분적인 생산 차질 등으로 수출이 둔화될 전망이다

○ (主力 産業의 새로운 競爭力 構築)

-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 소재 산업은 高附加價値 製品 構造로 전환이 필요함
- 자동차, 조선 등 組立 産業은 협력업체간 경쟁 체제 구축, 국내 업체간 협력 및 제휴 강화, 海外 生産 體系 구축 및 국내외 연계성 강화 등 低비용, 高부가가치, 高효율 생산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함

○ (課題)

- 短期的으로 企業은 경비 절감, 공정 개선,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와 더불어 기존 제품의 시설 투자보다는 기술 개발 투자, 연구 투자 등 설비 투자의 고도화가 필요함
- 中·長期的으로 企業은 사업 다각화보다는 특화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익성 爲主의 經營 戰略을 추진해야 하고, 국내외 자원을 최적 활용하는 생산 체제를 구축해야 함
- 정부는 海外 低利 資金 도입으로 SOC 민자 유치를 확대해 물류 비용을 축소하고, 民間 自律에 의한 構造 調整이 가능하도록 출자 한도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해야 함

I. 輸出 主力 産業의 輸出 現況

- (經常 收支 赤字 深化) 96년 237.2억 달러에 달하는 經常 收支 赤字는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수출 부진과 무역외 수지 적자 확대가 주요인
- (5大 産業의 輸出 比重 縮小)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輸出 比重이 점차 縮小되고 있음
- (輸出 競爭力 低下) 5대 주력 산업은 總交易 規模 對比 輸出 比重이 줄어들고 있어서 수출 경쟁력도 점차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상 수지 적자의 주요인은 반도체 수출 부진과 무역외 수지 적자 확대에 기인

- 96년도 경상 수지 적자 규모는 237.2억 달러에 달했음
 - 무역 수지는 95년 47.5억 달러 적자에서 96년에 152.8억 달러로 대폭 확대되었음
 - 이는 수출이 1,28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4.1% 증가한 반면에 수입은 1,435.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2% 증가했기 때문임
 - 96년초 반도체의 수출 목표치는 313억 달러였는데, 실적치는 178.4억 달러에 그쳐 수출 차질액이 무려 134.6억 달러에 이룸
 - 동시에 무역외 수지도 95년 36.4억 달러 적자에서 96년에 76.8억 달러 적자로 2배 이상 확대되었음
 - 경상 수지 적자의 주요인은 반도체 수출 부진과 무역외 수지 적자의 확대에 따른 것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든 부문은 반도체, 철강이고 크게 늘어난 부문은 자동차임

-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있음
 -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년도에는 39.2%에 달하였으나 96년도에는 36.3%로 급격히 축소되었음
 - 산업별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석유화학, 철강,

輸出 主力 産業의 競爭力 現況과 輸出 展望 I. 輸出 主力 産業의 輸出 現況

반도체의 비중은 축소된 반면 자동차, 조선의 비중은 소폭 증가하였음

· 특히 반도체의 경우 95년 17.7%의 비중에서 96년에는 13.8%로 급격히 감소하였음

<주력 산업의 수출 비중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달러)

	1994	1995	1996
총 수출액	96,013	125,058	129,715
석유화학	3,814 (4.0)	5,759 (4.6)	5,445 (4.2)
철강	5,587 (5.8)	7,246 (5.8)	6,056 (4.7)
반도체	12,984 (13.5)	22,115 (17.7)	17,843 (13.8)
자동차	5,287 (5.5)	8,430 (6.7)	10,463 (8.1)
조선	4,943 (5.1)	5,530 (4.4)	7,125 (5.5)
5대 산업 합계	32,615 (34.0)	49,080 (39.2)	46,932 (36.3)

주: 1) () 내는 각 산업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2) 조선의 경우, 수리 조선 부문도 포함된 수치임

조선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무역 특화 지수가 악화

○ 무역 특화 지수를 통해 살펴본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¹⁾

- 무역 특화 지수는 해당 품목의 총 교역 규모(수출과 수입을 더한 액수)대비 수출입 차이임
 - 무역 특화 지수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수입에 비해 수출이 많아 상대적으로 수출 경쟁력이 높아졌음을 나타냄
- 5대 수출 주력 산업 중에서 반도체는 95년의 0.33에서 96년 0.27로 낮아졌고, 철강은 -0.09에서 -1.06으로 그리고 자동차는 0.89에서 0.84로 낮아졌음

1) 산업연구원, 「주요 산업의 수출 경쟁력 변화」, 1996.

輸出 主力 産業의 競爭力 現況과 輸出 展望 1. 輸出 主力 産業의 輸出 現況

- 자동차의 경우, 수출 증가에 비해 수입 증가폭이 컸기 때문임
- 그러나 5대 산업 중에서도 석유화학은 -0.23에서 0.1로 조선은 0.56에서 0.6으로 상승했음
- 조선은 수주 증가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시설 확장을 통해 수출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임

경쟁력 저하의 주된 요인은 엔 低에 의한 가격 경쟁력 상실이나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근본적인 원인

○ 경쟁력 저하의 주된 원인

- 최근 5대 주력 산업의 부진은 對내·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외적 상황을 보면 1995년 중반 이후 원화의 절하 추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경쟁 상대국인 일본 엔화의 절하 폭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1996년중 원화 가치는 달러화에 대하여 4.3% 하락
 - 이에 비하여 엔화는 달러화에 대해 15.6% 절하
 - 결과적으로 원화가 엔화에 비해 11.3% 포인트 정도 절상되었음
- 특히 반도체, 자동차, 조선 산업의 경우, 수출 시장에서 일본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엔화 환율 변동은 이들 산업의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침
- 최근 지속되고 있는 엔저로 인해 일본의 전자, 자동차, 조선 업계에서는 제품 수출가 및 수주가 를 대폭 낮추거나 대대적인 판매 지원에 나서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 해외 직접 투자 수준이 낮음. 지속적인 시장 확대와 통상 문제에 대한 대응력에서 취약성을 보이는 원인이 되고 있음. 직접 수출에 의존하기보다는 현지화 등 적극적으로 글로벌한 산업 재편이 필요함

<GNP 대비 해외 직접 투자 비율 추이>

	한국	미국	일본	대만
해외직접투자/GNP*100	2.3%(95)	7.5%(94)	10.0%(94)	3.6%(94)

輸出 主力 産業의 競爭力 現況과 輸出 展望 I. 輸出 主力 産業의 輸出 現況

- 내적 상황을 보면, 국내 산업 구조가 고임금·고물가·고금리로 대표되는 고비용 구조로 전환된 데 기인함
 - 국내 산업의 임금은 1985~95년간 4.2배나 상승하여 주요 경쟁국인 미국, 일본은 물론 대만, 싱가포르 등의 상승 폭보다 2배 이상임
 - 대출 금리도 1995년 10.8%로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2~7% 정도 높은 수준임
 - 또한,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 물가는 과거 10년 동안 28.5%나 상승된 데 반해, 일본과 싱가포르는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오히려 각각 33.4%, 28.6% 인하시킴으로써 국내 제품의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켰음

<주요 경쟁국의 요소 비용 비교(1995년)>

	단 위	한 국	미 국	일 본	싱가폴	대 만
월평균 임금(전 산업)	85년=100	421.7	129.6	131.0	237.9	279.2
금리(대출 금리)	1995년, %	10.8	8.8	4.1	6.4	7.0
물류비(매출액 대비 비중)	%	17.0	7.0	11.0	-	-
주요 공업 단지 지가	천원/평	254	24	-	3	-
수출 물가	85년=100	128.5	123.9	66.6	71.4	-
소비자 물가	85년=100	175.9	141.5	114.4	121.0	139.4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1996. 6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1996

주: 1) 임금, 수출 물가, 소비자 물가 등은 자국 통화 기준 증가율임

2) 제조업은 시간당 임금 기준임

II. 産業別 競爭力 現況과 輸出 展望

1. 石油化學

- (現況) 96년도는 物量面에서 수출 규모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製品 價格이 급속히 하락하여 금액 기준 輸出 規模는 1995년보다 소폭 감소하였음
- (競爭力 評價) 가격 경쟁력은 미국, 유럽 국가들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며, 汎用 製品 이외의 생산 기술은 先進國의 40~60% 水準에 그침
- (輸出 展望) 97년 수출은 25%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국내외 주요 석유 화학 업체의 설비 개·보수로 인한 공급 축소에 따라 가격 回復이 기대되기 때문임
- (課題) 범용 제품 중심의 단순한 생산 기술에 의존하는 전략에서 탈피, 高度 技術 開發에 의한 高附加價値 제품 개발이 시급함

수출은 물량 면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소폭 상승

○ 現況

- 석유화학 산업은 物量면에서 수출 규모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이 1995년에 비해 크게 하락함에 따라 金額 기준 수출 규모는 1995년보다 감소하였음
 - 1996년중 유화 製品의 수출 單價는 1995년 대비 평균 19% 내외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수출은 물량 면에서 증가하였지만 금액 면에서는 1995년보다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석유화학 수출 추이>

(단위: 1,000 톤, 100만 달러)

	1994	1995	1996
물량	3,814 (1.0%)	3,089 (22.5%)	3,544 (14.7%)
금액	3,814 (4.1%)	5,758 (50.8%)	5,445 (-5.4%)

가격 경쟁력과
제품 개발 기술
이 선진국에 비
해 크게 열등함

○ 競爭力 評價

-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不振은 주요 수출 시장인 동남아와 중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둔화된 데 기인함
 - 최근 들어 이들 지역의 자체 생산 설비 확충에 따라 경쟁이 深化되고 있음
- 가격 경쟁력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제품은 미국,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불리한 입장임
 - 우리나라의 에틸렌 製造 原價는 일본, 중국 등에 비해서는 저렴한 水準이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 비해서는 높은 편임
- 우리나라의 汎用 제품 생산 기술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신제품 개발 기술, 설계 기술, 觸媒 기술 등은 선진국의 40~60%에 지나지 않음

○ 올해 輸出 展望

- 각 석유화학 제품들 가격이 96년의 바닥치에서 回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런 추세는 상반기 중 지속될 전망
 - 국내외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의 올해 상반기중 에 예정된 개·보수로 인한 공급 물량 축소가 가격 상승의 원인
- 97년 석유화학 산업의 수출은 물량 기준으로 25%, 금액 기준으로는 21.3%까지 대폭 增大될 것으로 예상됨

생산 설비 능력
증대에 따른 생
산 증가와 제품
가격 회복으로
수출이 대폭 증
대될 것으로 전
망됨

<97년도 석유화학 수출 수정 전망>

(단위: 1,000 톤, 100만 달러)

	96년	기존 97년 전망	수정 전망
물량 기준	3,544 (14.7%)	4,075.6 (15.0%)	4,430 (25.0%)
금액 기준	5,445 (-5.4%)	-	6,606 (21.3%)

주: 1)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기존 97년 전망치에 96년 실적 적용

- 이는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된 생산 設備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공급 물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특히 TPA를 중심으로 합섬 원료 제품들의 수출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됨

○ 課題

고도 기술 개발과 함께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의 전환이 시급

- 上半期中 석유화학 제품들의 가격 好調로 수출 증대가 예상되지만, 향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몇가지 課題들이 있음
-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범용 제품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과 기술 獨占에 의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확대에 대응할 전략 마련이 시급함
 - 현재와 같은 범용 제품 중심의 단순한 생산 기술에 의존하는 전략에서 탈피, 과감한 기술 개발에 의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과 업계마다 독자적인 核心 전략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가격 경쟁력의 유지 내지는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기업 스스로가 효율적인 物流 시스템을 구축, 높은 수준의 물류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주요 수출 시장의 시장 환경을 감안하여 投資를 점진적으로 확대, 규모의 경제 효과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임 (정오영)

2. 鐵鋼

- (現況) 철강 산업의 수출은 물량 면에서는 작년에 5.5%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수출 단가 하락으로 금액 기준으로는 16.4% 감소
- (競爭力 評價) 보통강 판재류는 가격 경쟁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공급 능력 정체로 수출이 부진하고, 고부가가치鋼은 기술 개발 미비로 열세를 나타냄
- (輸出 展望) 내수 위축에 따른 수출 여력의 증가와 세계 철강 경기 회복에 힘입어 철강 수출량이 지난해보다 9.8%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 (課題) 판재류 부족에 대응한 고로 증설이 시급함

수출 단가 하락
으로 금액 기준
으로 16.4% 감소

○ 現況

- 철강재 수출은 물량 기준으로는 94년 12% 감소에서 95년 2.1%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었고, 작년에 5.5% 증가로 돌아섬
- 그러나 금액 기준으로는 수출 單價의 하락으로 작년에 무려 16.4%나 감소했음

<철강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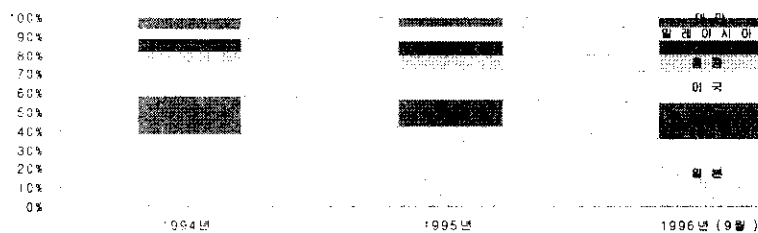
(단위: 1,000 톤, 100만 달러)

	1994	1995	1996
물량	10,162 (-12%)	9,953 (-2.1%)	10,500 (5.5%)
금액	5,525 (-16.4%)	7,246 (31.2%)	6,056 (-16.4%)

수요 둔화와 가
격 경쟁력 약화
로 일본, 동남아
지역으로의 수출
감소

- 주요 시장인 일본, 미국, 동남아 지역으로의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음. 중국은 增加率이 둔화되기는 하였지만 판재류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지속
- 일본으로의 수출 부진은 수요 둔화, 在庫 조정에 따른 수출 수요의 감소에 기인함

<지역별 수출 비중>



수출 주력 품목인 판재류는 공급 정체로 수출이 둔화되고,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조강류는 수입 증가와 재고 누적 현상을 보임

철강 내수의 정체와 수출 시장의 수요 회복으로 97년 철강재 수출량은 전년에 비해 9.8% 정도 늘어날 것임

○ 競爭力 評價

- 보통강 판재류의 경우 가격, 品質 경쟁력 유지
- 냉연강판의 제조 원가(톤당)를 보면 '9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487\$로서 미국 미니밀의 377\$나 브라질의 473\$보다는 높지만 일본의 622\$, 미국 일관제철소의 507\$보다는 낮아 경쟁 우위에 있음
- 그러나 內需 충당과 생산 停滯에 따른 만성적인 공급 부족으로 인해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함
- 반면 신강종 개발 부진과 기술 수준 미비로 특수강 등 고부가가치강은 상대적으로 劣勢이고, 공급 능력이 늘어난 조강류는 절대적인 가격 경쟁력 열위에 있음
- 전기로 설비 증설에 따른 원료, 반제품의 수입 의존도 상승은 철강 산업 전체의 수출 경쟁력 向上을 저해함

○ 올해 輸出 展望

- 철강재 수출은 철강 내수 위축으로 인한 수출 여력 확대와 국제 수출 市況 회복에 힘입어 전년 대비 9.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상반기 景氣 불황의 심화와 가전, 자동차 등 철강 수요 산업의 위축으로 철강 내수가 축소돼 수출 여력이 크게 증가함
- 수출 주력 시장인 동남아의 철강 가격이 재고 조정 및 경기 회복으로 '95년 이후 하락세에서 올해초 상승세로 돌아섬

<97년도 철강 수출 수정 전망>

(단위: 1,000 톤, 100만 달러)

	96년	기존 97년 전망	수정 전망
물량 기준	10,500 (5.5%)	10,475.1 (5.1%)	10,940 (9.8%)
금액 기준	6,056 (-16.4%)	-	-

주: 1)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기존 97년 전망치에 96년 실적 적용

- 반면 엔/달러 換率 상승에 의한 일본 철강재의 가격 경

쟁력 회복과 한보철강의 조업 부진에 따른 핫코일 공급 불안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부문간 균형 발전을 통해 철강 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課題

- 이같은 낙관적 수출 전망은 국내 철강 수요는 沈滯되지만 세계 철강 수요가 회복되는데 근거를 두고 있음
- 따라서 지속적인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산업의 구조적 불균형을 개선해야 함
- 그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製銑 部門의 생산 능력 확충을 통한 製法간 불균형의 해소임
- 電氣爐 業종의 집중적인 투자는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의 주 요소로 작용하였음
- 조강류의 공급 과잉, 판재류의 공급 부족이라는 양극화 현상을 유발하고 철강 원료의 대외 의존도를 높임
- 그러므로 高爐-轉爐 公정의 확대를 통해 경쟁력 있는 판재류의 공급 능력을 늘리는 한편 품질의 고급화를 이뤄 날로 다양화, 고급화하고 있는 국내·외 수요에 대응해야 할 것임 (박병철)

3. 半導體

- (現況)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國內 半導體 3社의 수출이 대폭 감소
- (競爭力 評價) 메모리 반도체는 생산 규모 및 단가 측면에서 경쟁력이 강한 편이나, 수익성이 높은 비메모리 분야는 기반 기술과 설계 인력 부족으로 인해 競爭力이 취약한 상황임
- (輸出 展望) 한국 반도체 3社의 減産 政策과 일본 업체의 減産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수출 회복 기미가 보임
- (課題) 반도체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材料와 裝備 産業에 대한 투자 확대, 비메모리 반도체 비중의 확대를 통한 수익성 및 안정성 확보, 그리고 業界의 共同 研究 體制 構築을 통한 투자 효율성 증대가 필요함

비메모리 부문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부문의 대폭 축소로 인해 전체적으로 7% 감소

○ 現況

- 1996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1995년의 1,513億 달러에서 7% 감소한 1,407억 달러를 기록했음
 - 이러한 규모 축소는 1995년말 50 달러이던 16M DRAM 가격이 1996년에는 9 달러까지 폭락함에 따라 DRAM 시장이 대폭 축소하는데 기인하고 있음
- 생산 품목이 DRAM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업체의 매출 규모는 1995년에 비해 대폭 축소되었음
 - 삼성전자는 26% 감소한 62억 달러, LG반도체 22.6억 달러, 현대전자 22.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
 - 반면 연산처리장치(MPU) 등 비메모리에 집중하고 있는 美國의 인텔社는 29%의 매출 증가율을 보임
- 가격 하락의 여파로 인해 반도체 수출액은 178.4억 달러로서 1995년 대비 19.3% 감소하였음

<반도체 수출 추이>

(단위: 억 달러)

	1994	1995	1996
수출액	129.8 (61.7%)	221.1 (70.3%)	178.4 (-19.3%)

메모리 반도체는
생산 규모, 원가
측면에서 경쟁력
보유

비메모리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
에 있음

한·일 반도체
업체의 실질 감
산 정책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

○ 競爭力 評價

-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 경쟁력이 가장 중요함
 - 대량 생산을 위주로 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시장 수급 狀況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남
- 가격 하락기에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원가 절감
 - 메모리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생산 규모 측면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원가 측면에서도 競爭力을 갖고 있음
- 장기적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요인은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력 확보에 있으나 아직은 경쟁력이 취약함
 - 미국, 일본도 초기에 메모리로 시작하여 비메모리 분야로 사업 領域을 확대해 갔음
 - 또한 대만 등이 메모리 분야 투자를 증대하고 있어 향후 메모리 시장에서 입지가 약화될 수 있음
 - 국내에서는 95년에 반도체설계교육센터를 민관 공동으로 설립하여 설계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있음
 - 결국 비메모리 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分野라고 할 수 있음

○ 올해 輸出 展望

- 국내 반도체 3사의 減産 결정에 이어 최근에 세계 반도체 시장의 25% 정도를 점유하는 일본 업체들(예: NEC, 미쓰비시, 도시바) 감산 발표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 96년 반도체 시장의 특징은 끝이 없는 가격 하락 추세로서, 수출 전망 또한 비관적이었음
 - 그러나 올해 2월에 들어서면서 반도체 업체의 실질적인 감산 정책이 실시됨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 3월 현재 16M DRAM은 現物 시장에서 작년 말에 비해 약 20% 높은 가격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음

<97년도 반도체 수출 수정 전망>

(단위: 억 달러)

	96년	기존 97년 전망	수정 전망
수출액	178.4 (-19.3%)	191.4 (7.3%)	198.0 (10.9%)

주: 1)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기존 97년 전망치에 96년 실적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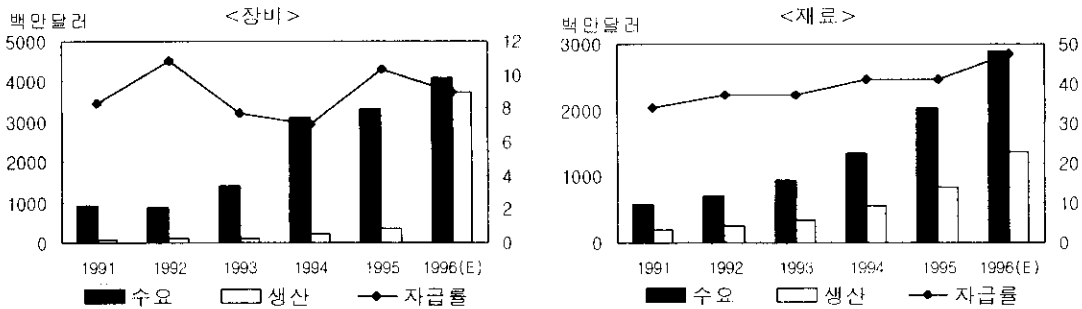
○ 課題

멀티미디어화의
지속에 따라 비
메모리 부문 강
화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임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재료
및 장비 산업의
기반이 튼튼해야
함

-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쟁력 확보는 위험도의 分散을 위한 품목 다양화에 기초해야 함
- 멀티미디어화가 계속됨에 따라 정보 기기의 소형화, 고성능화가 진전될 것이며, 이것은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임
- 따라서, 세계 반도체 시장 構造와 유사한 생산 체제로 개선함으로써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함
- 비메모리 반도체는 우수한 설계 및 기술 인력의 확보가 관건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정부와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인력 양성에 노력해야 함
- 또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국내 전자 및 정보통신 업체와 공동개발을 통한 비메모리 개발로 내수 기반 확충이 필요함
- 일본 업체의 경우 비메모리 비중을 더욱 높이기 위해 시스템 LSI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장비와 재료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함
- 장비와 재료 산업은 기반 기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관민 협조를 통한 기술 개발이 중요함
- 특히 국산화율이 낮은 포토 레지스터, 다이 접착제 등 고기능 제품 개발이 시급함

<국내 반도체 장비 및 재료의 수요와 생산 추이>



자료: KSIA 실태조사

투자비 증대에 따른 위험도 감소를 위해서는 공동연구체제가 절실함

- 세계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해서는 산·관·학 협력을 통한 투자 효율성 증대가 필요함
- 반도체의 고집적화, 고기능화에 따른 투자비 증대로 개별 기업에 의한 투자의 위험성이 높아짐
- 미국은 1987년에 이미 기업 연합체인 세마테크를 만들어 반도체 기술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도 90년대에 들어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해 반도체와 관련된 공동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술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일본의 반도체 관련 공동연구소>

연구소	설립연도	설립 형태	목적
半導體産業研究所	94.4	NEC, 東芝, 日立 등 10개사 출자	반도체산업 육성정책 개발, 비전제시 등
(株)半導體理工學研究센터	95.12	정부출자의 위탁연구	산학과 대학간 공동연구 촉진
(株)半導體先端테크놀로지스	96.2	민간기업 10개사 출자	0.25/0.18 μ m 제조장비 개발
超先端電子技術開發機構	96.3	정부출자의 위탁연구	4/16G DRAM 요소기술개발
수퍼실리콘研究所	96.3	정부와 민간기업간 공동출자	400mm(16") 웨이퍼 개발

資料: KIET

(신광철)

4. 自動車

- (現況) 95년 32.7%의 증가율을 나타냈던 자동차 수출이 96년에는 23.6%를 나타내 증가 추세가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음
- (競爭力 評價) 가격, 품질, 안전도, 연비, 성능 등 주요 경쟁력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차는 외국차에 비해 소형, 중소형 부문에서 10% 우위 내지 동등한 수준이나 중형차급에서는 10% 정도 열세임. 산업 전체 생산성도 평균적으로 일본의 절반 수준임
- (輸出 展望) 96년말 발생한 노사 분규, 엔저 현상 지속 등으로 인해 97년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8.3% 증가에 그친 131만 여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課題) 우선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을 전사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나아가 품질 개선, 제품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주력해야 함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음

○ 現況

- 최근 들어 자동차 수출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음
- 자동차 업체들의 시장 다변화 전략과 활발한 마케팅 전략으로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1996년 자동차 수출은 약 121만 대를 기록해 사상 최초로 100만 대를 넘어섰음
- 그러나 증가율은 1995년 32.7%에 비해 크게 둔화된 23.6%를 나타냈음

<자동차 지역별 수출 추이>

(단위: 1,000 대, %)

	계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북미	중남미
94	738 (15.3)	160 (1.3)	18 (41.7)	196 (-14.7)	235 (80.8)	129 (36.3)
95	979 (32.7)	353 (120.6)	42 (147.1)	215 (36.9)	203 (-13.6)	166 (33.9)
96	1,210 (23.6)	450 (27.5)	90 (115.2)	279 (26.6)	224 (10.1)	167 (0.4)

자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 통계 월보」, 1997.1.

주: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동유럽,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자동차 수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북미 및 중남미 지역으로의 수출은 둔화되고 있음

품질 수준이 아직 선진 업체에 비해 낮은 상태이고 가격 경쟁력마저 추월 당할 위기에 처해 있음

- 96년 유럽 지역으로의 수출이 전체의 37.2%를 차지함으로써 최대 수출 시장임
- 특히 동유럽 지역이 93.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여 새로운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아프리카 지역은 업체들의 시장 進出 노력으로 115.2%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였음
- 아시아·태평양 지역도 업체들의 시장 확대 노력으로 26.6%의 건실한 증가율을 나타냈음
- 북미 지역으로의 수출은 10.1% 증가한 22만 3,509 대에 그쳤으며, 중남미 지역은 0.4% 증가에 그쳤음

○ 競爭力 評價

- 수출 둔화의 가장 주된 요인은 品質 경쟁력이 아직까지 선진 업체에 비해 낮은 상태라는 점임
- 1996년 100대 당 신차 결점 수의 경우, 경쟁차의 평균은 105 수준이지만 국내 업체는 169로 평균치보다 38% 열세에 있음(J. D. Power 조사)
- 품질 향상률은 경쟁차에 비해 뚜렷하나 한국차는 아직 일본차 품질 수준의 절반 정도인 것으로 미국 시장에서 조사되고 있음
- 미국 시장에서 가격, 품질, 안전도, 연비, 성능 등 주요 경쟁력 요소를 종합하여 조사한 결과는, 한국차는 외국차에 비해 소형, 중소형 부문에서 10% 우위 내지 동등한 수준이나 중형차급에서는 10% 정도 열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96년 10월 기준).
- 특히 최근 들어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가지고 있던 가격 경쟁력 優位 폭도 더욱 좁아지고 있는 상태임
- 미국 시장의 경우, 한국의 수출 자동차는 低價 현상으로 인해 일본 자동차와의 가격차가 크게 좁아졌음
- 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도 일본 업체들의 아시아카 개발에 따라 국내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

노사 분규의 영향, 엔저 현상 지속 등으로 수출 증가 추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 올해 輸出 展望

- 97년 자동차 수출은 96년 대비 8.3% 증가한 약 131만 여대에 이를 전망이다
 - 이 수정 전망치는 본 연구원이 작년에 전망한 9.3%의 증가율보다는 소폭 악화된 것임
- 이와 같이 97년 자동차 수출 전망의 수정은 주로 96년말에 발생한 노사 분규에 기인함
 - 96년 12월에 발생한 노사 분규로 인해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 및 수출이 막대한 차질을 빚었음
 - 96. 12. 26~97. 1. 15 동안 완성차 업체들의 파업과 휴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액은 약 1조 1,000억 원, 12만대에 이룸

<97년도 자동차 수출 수정 전망>

(단위: 1,000 대)

	96년	기존 97년 전망	수정 전망
수출	1,210 (23.6%)	1,322.5 (9.3%)	1,310 (8.3%)

주: 1)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기존 97년 전망치에 96년 실적 적용

지역 특성에 맞는 제품 개발과 부품업체의 대형화, 부품 조달의 시스템화 등을 통한 원가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 회복이 시장 확보의 관건

○ 課題

- 향후 자동차 수출 여건은 더욱 惡化될 전망이다
 - 엔저 현상으로 인한 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現地 生産 확대에 의한 수출 물량 감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수출 전략, 원가 절감을 통한 저가 자동차 개발 등을 추진해야 함
- 지역별로 差別化된 수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임
 - 선진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품질과 실용성 및 이미지 개선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임

- 특히 ‘저가격·저품질’ 이미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제품 생산까지 품질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향후 대폭적인 성장세를 보일 신흥 시장의 경우, 가격 중심의 수출 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이며, 현지 생산으로 수출 障壁을 해소시켜야 할 것임
- 다양한 기능보다는 이들 지역의 문화를 고려한 제품 개발도 필요함
- 세계적인 품질 평준화 현상으로 비용 경쟁력이 향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 이를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원가 절감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일본 업체들의 경우, 원가 절감의 약 80%가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부품 업체의 대형화도 규모의 이익과 부품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임
 - 부품 調達의 시스템화와 모듈화도 원가 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임
- 업체별 특정 이미지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세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업체들은 독특하고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
 - 제품에 내재된 강한 특징을 바탕으로 形成된 이미지가 마케팅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윤창호)

5. 造船

- (現況) 수주는 지난 연말 탱커 대량 수주에도 불구하고 연초 예상치에 약간 못 미치는 695만 GT, 수출은 최근 3년간 확보된 수주 물량과 생산 설비 능력 증대로 30% 정도 증가한 66억 달러였음
- (競爭力 評價) 현재 최대 경쟁국인 일본과 비교해 볼 때 가격 경쟁력은 9%, 비가격 경쟁력은 5% 劣位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 종합 경쟁력은 14%까지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됨
- (輸出 展望) 97년 新造船 受注는 일본의 선별 수주와 우리 업체들의 확장된 생산 능력의 적정 稼働率 확보를 위한 공격적인 수주에 따라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며, 수출은 생산 停滯로 96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임
- (課題) 생산성 향상, 선박의 건조 원가 절감, 기술 개발 투자 등 각 부문에서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가격 경쟁력 약화에
에도 불구하고 수
주는 소폭 감소,
생산 능력 증대로
수출은 대폭 증가

○ 現況

- 96년도 국내 조선 업계의 수주 실적은 695만 GT(2.6% 감소), 70.5억 달러(3.8% 증가)로 集計됨
- 수주 감소폭이 예상보다 적은 이유는 지난 연말 탱커의 대량 수주와 일본 조선 업계의 2년치 수주 물량 확보로 인한 수주 의지 減退에 기인함
- 수출은 780만 GT(37.7% 증가), 65.9억 달러(30% 증가)로 나타남
- 수출 증가의 원인들로는 조선 설비 능력(현재 810만 GT) 확장, 學習 효과에 의한 생산성 향상, 노사 분규 감소로 인한 안정적인 조업 등에 있음

<조선 수주 및 수출 추이>

(단위: 만 GT, 억 달러)

	1994	1995	1996
수주	637 (-33%)	713 (12.0%)	695 (-2.6%)
수출	44.7 (38.4%)	50.5 (13.1%)	65.9 (30.5%)

현재 국내 조선 산업의 對日 경쟁력은 비가격 경쟁력에서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에서도 열위에 있음

○ 競爭力 評價

- 현재 조선 산업의 종합 경쟁력을 평가해 보면 일본보다 13~14% 열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원재료, 勞務費 등이 포함되는 가격 경쟁력의 경우, 현재의 환율 조건을 고려해 보면 9% 정도 아래에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또 품질·납기·금융 등 비가격 경쟁력에서도 일본이 5% 정도 우위에 있음

<한·일간 선박 건조 비용 비교>

	원재료비		노무비	기타	합계
	강재	엔진 및 기타 자재			
한국	17	46	34	12	109
일본	15	45	30	10	100

주: 1달러=860원=120엔 기준

적정 생산 가동률 확보와 일본의 수주 여력 감소로 수주 증대가 예상됨

○ 올해 輸出 展望

- 97년 신조선 수주는 전년보다 19.4% 정도 증가한 830만 GT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엔저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기는 하였지만, 최근에 증대된 생산 설비의 적정 稼動率 확보를 위해서 각 조선사들이 적극적인 수주를 펼칠 것으로 예상됨
- 또, 우리의 최대 경쟁국인 일본이 98년 말까지의 조업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수주 여력이 작아진 데도 원인이 있음
- 수출은 전년도보다 약간 증가한 67억 달러 정도로 예상됨
- 96년 말에 97년 초 납기 물량을 앞당겨 건조하였고, 생산 設備 증대가 일단락 됨으로써 더 이상의 생산 증가 요인이 없는 반면에 올해 들어 노사 분규로 인한 약간의 생산 차질 예상

<97년도 조선 수출 수정 전망>

(단위: 만 GT, 억 달러)

	96년	기존 97년 전망	수정 전망
수주	695 (-2.6%)	809 (16.4%)	830 (19.4%)
수출	65.9 (30.5%)	68.1 (3.3%)	67.0 (1.7%)

주: 1)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기존 97년 전망치에 96년 실적 적용

모든 부문에 있어서 구체적인 목표치가 설정된 경쟁력 강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

○ 課題

- 향후 2005년까지는 현재의 한·일간 수주 경쟁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국내 조선 산업은 생산성 향상, 해외 부품 조달, 공정 自動化 등을 통하여 선박 건조 원가를 줄여 나가는 노력을 배가시켜야 할 것임
- 우선 노동 숙련도나 생산 관리 능력 제고 방안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함
- 두번째는 기자재 標準化 및 통합 구매를 신속히 시행하는 한편, 중국 등 저임금 지역 조선소들을 이용한 기본 부품의 해외 조달 방안을 마련해 생산 비용을 줄여 나가야 함
- 세번째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선박의 설계·공정 계획·생산 기술의 데이터 베이스화, 컴퓨터에 의한 생산(CIM) 방식 도입, 각 조선소내의 생산 시스템 통합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실용화시켜야 함

(정희식)

III. 競爭力 提高 方案

○ (既存 成長 戰略 限界)

- 성장기에 가려져 있던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경쟁력 강화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 素材 産業의 경우에는 低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는 수출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음
- 자동차, 조선 등 組立 産業의 경우에는 국내 생산만으로는 가격 경쟁력 유지가 곤란

○ (輸出 修正 展望 綜合)

- 소재 산업인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산업의 97년 수출은 국내외 주요 반도체의 감소, 해외 수요 호전 등으로 前年에 비해서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조립 산업인 자동차, 조선 산업의 경우에는 엔저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 노사 분규로 인한 부분적인 생산 차질 등으로 수출이 둔화될 전망이다

○ (輸出 主力 産業의 새로운 競爭力 構築)

-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 소재 산업은 高附加價値 製品 構造로 전환이 필요함
- 자동차, 조선 등 組立 産業은 협력업체간 경쟁 체제 구축, 국내 업체간 협력 및 제휴 강화, 해외 생산 체제 구축 및 국내외 연계성 강화 등 저비용, 고부가가치, 고효율 생산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함

○ (課題)

- 短期的으로 企業은 경비 절감, 공정 개선,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와 더불어 기존 제품의 시설 투자보다는 기술 개발 투자, 연구 투자 등 설비 투자의 고도화가 필요함
- 中·長期的으로 企業은 사업 다각화보다는 특화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익성 爲主의 經營 戰略을 추진해야 하고, 국내외 자원을 최적 활용하는 생산 체제를 구축해야 함
- 정부는 海外 低利 資金 도입으로 SOC 민자 유치를 확대해 물류 비용을 축소하고, 民間 自律에 의한 構造 調整이 가능하도록 출자 한도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해야 함

소재 산업은 저 부가가치 제품의 한계, 조립 산업은 기존 생산 방식의 한계

- 고비용 구조로 인한 기존 성장 전략의 한계 노출
 -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대외 지향적인 공업화를 통하여 고도 성장을 달성하고 국제 위상을 제고해 왔음
 - 단순 노동과 기술로써 양적 확대를 지향하는 경제 발전 전략을 통해 이룩했던 경제 성장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임금, 금리, 높은 지가 등 고비용 구조는 노동법 개정, 금융 시장 개방·개혁, 공단 분양가 인하 등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미국, 일본, 동남아 국가 등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기 어려워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임
 - 특히, 주력 산업 중 석유화학, 반도체, 철강 등 소재 산업의 경우에는 공급 과잉에 따른 수출 가격이 하락해 범용 제품으로는 한계에 봉착함
 - 자동차, 조선 등 조립 산업의 경우에는 고비용 구조, 엔저로 인하여 국내에 기반을 둔 생산 방식으로는 가격 경쟁력상 한계

<수출 주력 산업 평가 종합>

산업		경쟁력 현황	과제
소재 산업	석유 화학	- 지역별 자체 생산 능력 확충 - 주요 생산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 불리 - 고부가제품 생산 기술 수준 40-60%에 불과	- 범용 생산 제품 중심 생산 의존 탈피 - 고도 기술 개발 - 국내 업체간 전략적 제휴 필요성
	철강	- 전기로 조강류 제품 가격 경쟁력 불리 - 판재료 제품 생산 능력 정체로 수입 증가	- 고로 설비 증설을 통한 철강 생산 부문간 균형 발전
	반도체	- 공급 과잉으로 메모리 부문 가격 하락 - 비메모리 부문 경쟁력 열악	- 재료와 장비 사업 투자 확대 - 비메모리 반도체 비중 확대 - 업체 공동 연구 체계
조립 산업	자동차	- 선진국 저가 소형차 개발 - 신차 부품 불량률 선진국 비해 38% 열세	- 부품 업체의 대형화 - 선진 시장과 신흥 시장에 대한 차별화된 제품 전략
	조선	- 최대 경쟁국인 일본에 비해 가격 경쟁력 우위 상실	- 생산성 향상 - 기술 개발 투자 - 건조 원가 절감

- 수출 수정 전망 종합: 소재 산업은 전년에 비해 다소 호전, 조립 산업은 부진 지속
 - 5대 수출 주력 산업중 소재 산업인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의 경우에는 작년에 비하여 수출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임
 - 그리고 이 수정 전망치는 작년말 전망치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 엔저, 국내의 고비용 구조 등 국내·외적인 가격 경쟁력 요인은 크게 개선된 것은 없으나, 반도체, 석유화학에서 감산 등 생산 조절, 해외 수요 호전에 기인함
 - 조립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은 전년에 비해 크게 부진할 전망
 - 자동차의 경우에는 엔저 현상의 지속과 노사 분규에 따른 생산 차질이 예상돼 전년의 23.6% 증가에서 8.3%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임
 - 조선은 수주는 큰 폭으로 증가가 예상되나 수출은 생산 시설 확대가 일단락되어 생산 증가 요인이 없기 때문 수출 증가율이 크게 떨어질 것임

<수출 주력 산업의 97년 수출 전망>

	96년 실적치	97년 기존 전망치	97년 수정 전망치
석유화학(1,000 톤)	3,544(14.7%)	4,075.6(15.0%)	4,430(25.0%)
철강(1,000 톤)	10,500(5.5%)	10,475.1(5.1%)	10,940(9.8%)
반도체(억 달러)	178.4(-19.3%)	191.4(7.3%)	198.0(10.9%)
자동차(1,000 대)	1,210(23.6%)	1,322.5(9.3%)	1,310(8.3%)
조선(억 달러)	65.9(30.5%)	68.1(3.3%)	67.0(1.7%)

- 주 : 1)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97년 기존 전망치에 96년 실적 적용
 3) 철강 실적치는 추정치임
 3) 조선은 생산 실적치 및 전망

소재 산업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구조로 전환, 조립 산업은 전방위 비용 절감 생산 체제 구축

단기적으로는 기업 내 비효율적인 구조 제거, 기술 개발 투자 확대 필요

- 수출 주력 산업의 새로운 경쟁력 구축
 - 주력 산업중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 소재 산업의 경우에는 국내의 고비용 구조로 인하여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로 방향으로 제품 생산 구조 조정 필요
 - 자동차, 조선 등 조립 산업의 경우에도 품질 개선,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 등이 필요하지만, 특히 국내·외 자원을 최적 활용하는 체제로 전환해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국내 부문에서 부품 공급 협력업체간 경쟁 체제 구축
 - 고정적인 계열화보다는 협력업체간의 경쟁을 유도해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효과를 유도
 - 국내 업체간의 협력과 제휴 강화
 - 기존의 국내 기업간 경쟁 시각에서 벗어나 원료의 공동 구매, 연구 개발의 공동 투자 등 업체간의 협력 체제 구축 필요
 - 해외 생산 체제의 구축
 - 경쟁력을 상실한 저부가치 상품의 생산 시설은 빠른 시일 내에 해외 이전

- 短期的으로 企業은 경비 절감, 공정 개선,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와 더불어 기존 제품의 시설 투자보다는 기술 개발 투자, 연구 투자 등 설비 투자의 고도화가 필요함
 - 고성장기에 보이지 않던 조직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축소, 경비 절감 노력을 배가
 - 철저한 생산 기획, 생산 공정의 개선 등을 통한 생산 기간 단축으로 생산성 증대
 - 기존 제품의 생산 시설의 확대보다는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나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투자를 확대해야 함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체질 강화, 민간 자율 구조 조정 지원

- 中·長期的으로 기업은 사업 다각화보다는 특화된 제품의 고부가치화를 통한 수익성 爲主의 經營 戰略을 추진해야 함. 정부는 海外 低利 資金 도입으로 SOC 민자 유치를 확대해 물류 비용을 축소하고, 民間 自律에 의한 構造 調整이 가능하도록 출자 한도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해야 함
 - 기업 측면에서는 고비용 구조의 단기간 해소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엔저, 수출 단가 하락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도록 건축 운영이 체질화되어야 함
 - 고성장기의 생산 능력 확충이나 무분별한 사업 분야 확대보다는 내실 위주의 경영이 필요
 - 정부 측면에서는 첫째, 높은 물류 비용, 고지가, 고임금, 고금리 등 고비용 구조 해소를 위한 정부의 투자와 규제 완화 지속
 - 특히 해외 저리 자금 도입의 확대를 통해 민자 유치 촉진이 필요함
 - 둘째, 초경쟁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 등 동남아 범용 제품의 생산 증대, 엔저 등 경제 환경 변화에 기업들이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대기업 정책, 중소기업 정책은 재고되어야 할 것임
 - 기업 규모에 대한 규제나 사업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석유화학, 철강 등 소재 산업의 진입, 퇴출과 관련된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기업들이 탄력적으로 시장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셋째, 민간 자율에 의한 구조 조정이 가능하도록 M&A 관련된 규제를 완화할 필요
 - M&A에 장애가 되고 있는 대기업의 출자 한도 제한 등의 규제는 완화되어야 함 (김선덕)